9.21. 현소강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 각각의 불행을 안고 산다.

* 톨스토이, 안나 카레리나 (러시아 제정시대 말기, 귀족 여성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시대상을 그렸다. 자유주의적 분위기와 격동의 시대를 재현한 리얼리즘의 걸작. 브론스키와 안나카레리나의 비극적인 사랑. 열차에서 자살하는 안나. 이광수의 소설에서 톨스토이 소설의 이런저런 면모를 볼 수 있다. 김동인 약한자의 슬픔에도 톨스토이 부활의 일면이 엿보인다. 남작과 그의 가정교사 강 엘리자베트. )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마주? 똑같이 옮기는 건 좋지 않지만. ]

2부: 한국 근현대 소설사의 전개

* 소설들은 각 작품이 진공속에 떠 있지는 않다. 그 소설들이 놓여 있는 시간적 좌표, 그 좌표를 우리는 문학사라고 일컫는다. 문학사의 맥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강독이 진행될 것.

근대와 현대? > 근대와 현대는 혼동되어 있고,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므로 섞어 쓰기로 한다. 둘을 나누는 데 객관적 기준은 없고 편의에 따라 사용되는, 아직 논란거리인 용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통칭하는 범용적 용어로 이해하자.

정사의 흐름과 시대의 특수성으로 10년의 단위를 두고 변화를 구별하기로 한다. (전통적인 시대구별의 방식)

근대 문체의 형성 > 근대의 문체는 고전문학의 문체와 완전히 다르다. 글쓰는 스타일이 달라졌음. 근대 문체는 어느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심청전, 구운몽 등은 소설문체와는 전혀 다르다.

2-1. 근대 소설로 진전

* 전대 양식과 근대를 지향하는 서사체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뚜렷한 단층을 두고 낙하해버리는 시대변화는 없다. 물론 그 폭이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지만, 항상 점진적 ‘이행기’, 즉 과도기가 있다. 오늘부터시작! 이 아니고 근대소설로 옮겨가는 시기가 있었다. 그 때가 이행기. 본격적 근대소설의 시기는 아닌, 전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 서사문학의 모습은 전형적인 이행기의 양상을 띠며,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섞이며 새로운 것이 더욱 세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색깔을 타는 물. 이미 있었던 양식들과 새 양식들이 뒤섞여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 왜 이런 변화가 이때에? : 구한 말의 격동의 시대였으니까. 문학의 변화는 문학 내적인 일만이 아니다. 새로운 표현 방식을 요청한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 종전의 문학 양식이 점점 유효성을 상실한다. 문학양식의 생성과 소멸은 당대의 표현방식이 유효성을 획득하고 상실하는 것이다. 고려가요는 조선의 성리학 이념을 담기에 적절치 않았기에 사라지고 새로운 양식들이 탄생. 문학 행위자, 창작 주체들의 주체적 선택의 일도 아니다. 시대가 그런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시조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향가가 구닥다리로 보이고. 새로운 감수성과 새로운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기본의 방식들이 불충분하고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향가와 고려가요가 사라지고 시조의 정형이 붕괴되며 사설시조가 생겨나는 것. 조선시대는 격동기였으니까 4음보 시조로는 불충분. 시대가 새로운 표현방식을 요청하는 것. 근대 전환기, 계몽기라고 부른 격동의 시대는 충격이 크다. 이상한 배,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종교가 퍼져나가는 시대. 게다가 살기도 힘들다. 도처에서 불만이 분출하고. 그런 시대였다. 새로운 표현방식이 요청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한마디로, ‘그런 얘기 할 시대가 아니었다.’ 시대와 문학이 모두 혼란한 시기. 당대의 문제들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이 문학적 폭로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 애국의 문제, 우국의 문제
* 애국과 계몽의 주제 의식을 표명한다.

: 풍전등화의 국권. (상술한 것과 연결) 외국의 구국, 건국에 대한 서사물이 번역 혹은 번안되어서 퍼져나갔다.

* 새로운 서사체들은 신문을 발표 매체로 삼는다.

: 당시의 현실을 반영. 고전소설과는 다른 형태의 이야기체들이 출현하고 그것들은 또 다른 근대적 매체를 타고 널리 퍼져가기도 하는 여러가지 양상들이 나타남.

* 논설과 서사의 결합 형식을 취한다.

: 논설적인 논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계몽이 목적이었으니까.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삽입했다. 김영민(연세대) / 신문이 주요 활동 무대이자 태동의 요람이었는데, 신문에서 짤막한 서사물들이 소개되었다.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고, novel은 전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논설이 퇴조하고 이야기만 부각되면서 소설로 이행 – 현대소설에서 소급하면 신문이 나온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 / 단행본이 나올 형편이 아니라서 서사물들은 신문을 타고 이동했다.

* 고소설과 번역 번안 소설을 제외한다면 이 시기 소설의 주요 흐름을 다음과 같다. (고전소설은 식민지 시대 내내 대중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전 서사물들을 사랑했었다. 그러나 문학사가 주목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 또는 당대의 가치와 감수성을 담아내는 작품들이다. 염상섭의 작품들은 당시에 인기가 전혀 없었지만 20년대 소설사는 그를 대표로 기록한다)

역사 전기류 - 장지연 ｢애국부인전｣, 신채호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박은식 ｢천개소문전｣ (영웅들의 업적을 전해주는 서사물들)

문답체 서사 - ｢소경과 안즘방이 문답｣ ｢거부오해｣ ｢향객담화｣ ｢향로방문의생｣ (독자의 흥미를 아울러 논조를 전달하고자 함. 연재방식으로 이루어진 서사체들.)

신소설 - 이인직 ｢혈의루｣ ｢치악산｣ ｢은세계｣, 이해조 ｢자유종｣, 최찬식 ｢추월색｣ ｢안의성｣, 신채호 ｢꿈 하늘｣, 안국선 ｢금수회의록｣ 등 (사건과 인물이 더 다채롭게 출현하고 논조는 많이 사라짐/ 금수회의록이 보여주는 첨예한 현실인식인 이인직류와는 구별된다. 이해조 역시 민족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음.)

* 번역보다 번안이 더 많았다.
* 1910년대 이후에는 재일 한국 유학생들이 발행한 유학생 회보에 근대적인 형태의 단편소설들이 실리기 시작한다.

: 국비 유학생, 천도교의 지원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주축. 그들이 배운 새로운 문학 작품들이 회보에 실리기 시작함. 작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910년 이후 유학생 회보에 고전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와 소설들이 실리면서 김동인과 주요한의 최초 타이틀은 많이 사라졌다. <학지광> 등에 실렸던 작품들.

* 근대 초기의 단편소설의 대표작으로 양건식 ｢슬픈모순｣, 유종석 ｢냉면 한 그릇｣ ,현상윤의 ｢핍박｣ 등이 있다.

<예문>

어느덧 황혼이 되어 시가는 어둑어둑한데 집집이 저녁 등불이 켜졌다. 어쩐 일인지 마음이 창연하여지고 이 세상 일이 모다 신산스럽고 귀치않고 슬프고 한스럽다. 저물어가는 시가에 수레바퀴 소리 요란히 들리고 길가에 앉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지껄지껄한다.

-유종석, 「냉면 한 그릇」중에서

: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츰 시대와 더불어 +서구문학의 영향을 받아 근대 초기의 단편소설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에 본격적인 근현대 소설이 시작됨

2-2. ｢무정｣과 동인지 시대 (1920년대 전반)

* 계몽적 지향과 개인의 욕망 실현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소설적 형상화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 보편적인 무제이자 가치였기 때문에 문학에서 형상화되었다. 주요한의 불놀이에서 말하는 개인적 세계와 불화하고 죽음을 찬미하는 개인적인 가치를 노래했다. 이전에는 세계와 화합하려 했지만 이제는 세계와 갈등하는 인물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계몽적 지향은 국권 상실과 맞물려 있다. 개인의 과제가 아닌 공적, 시대적 과제. 그래서 지식인들은 지도자이자 선구자라는 사명감을 많이 가졌다. 또한 구습에 의해 억압된 개인의 자유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욕망 문제. 이 두 축이 문학의 표현을 얻으면서 주요한 소설적 관심사가 된다. 개인의 욕망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주요한 불놀이), 계몽적인 면을 더 추구하기도 하는 양자적 욕구가 있었다. > 그런데 이것들이 잘 화합되는 가치는 아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어울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전래적 전통이자 공공의 적인 구습과의 전쟁을 치를 때는 계몽과 욕망이 공동전선을 이루었지만(자유연애, 가부장, 혼인방식 등), 이 양자는 본질적으로 조화될 수 없다. 계몽은 공적, 욕망은 사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계몽은 국권을 목표로 하면 사적 욕망들은 절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욕망은 구습 타파가 일정 수준에 이르자 미친듯이 불타올라서 계몽으로 제어가 안 된다. 이광수가 그것을 다 겪었다. 구습과의 전쟁터에서는 공동의 전건을 이루었지만 계몽과 욕망은 그 뒤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계몽은 절제를 요구하는 데 반해 욕망은 속박을 거부하니까 균열이 점점 커지고, 문학 안에서 보수적 집단 – 이른바 민족주의 문단의 출현을 가져오게 된다. 염상섭은 처음에는 전위적이었으나, 20년대에 오면 신여성을 비난하고… 이미 그때 계몽과 욕망이 화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소설에서도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공적 벽에 부딪쳐 사적 욕망이 좌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내용 등. 카프문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양상들의 전형적 사례가 이광수.

* 이광수는 ｢무정｣을 통해 자유연애와 계몽 의지를 형상화하려 한다.

: 계몽과 욕망 사이를 절묘하게 조절해 한국최초의 장편소설이라는 타이틀을 차지. 계몽이 연애를 포섭하는 구조로 간다. 일종의 미봉책이기는 하다. 욕망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 개척자라는 두번째 소설에서는 이게 안 된다.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이 파괴력을 드러낸 것. 이광수는 당황했고, 결국 졸작이 되고 만다. 욕망 때문에 파멸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어설프게 그려진 소설. 이광수 스스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그래서 길을 둘 다 가보는데 <유정>(파멸)과 <흙>(인류애)이다.

이광수> 원래 계몽적인 논객이었음. 이인직은 신선도가 떨어져서 이광수가 물망에 올라 발탁됨. 이미 논설과 서사로 이름을 날렸음. 총독부가 보기에도 괜찮았고. (매일신보) 참고할 것 없이, 당대 가능성의 최고치를 무정을 통해 실현하였다. 개인의 욕망과 계몽적 지향이 절묘하게 습합되어 버린 작품. 그러나 계몽과 욕망은 한 개인이 봉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점점 더 심화되기만 해서, 이광수는 그만한 성취를 내지 못한다.

* 김동인의 『創造』(1919) 창간과 더불어 동인지 시대가 개시된다.